

# 누가복음

1:3 **καμοί**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 명사에 대한 언급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에 불만을 가진  
 여러 필경사들이 "차례대로 내용을 쓰는 것이 ... 나와 **그리**  
**고 성경에게** 유의한 것 같다" (it<sup>b, w</sup>, vg<sup>3 mss</sup>, goth)란 구절을  
 5 첨가시켰다. 이 보충문은 행 15: 28 ("성령과 우리에게 가한 줄  
 알았노니")에서 온 것이다.

다른 시제

다른 시제

1:19 **προελεύσεται** {A} **προελεύσεται** 와  
**προσελεύσεται** 사이에서 위원회는 문맥상 앞이 인용된 단  
 어가 맞는 것 같다는 데에 동의했다. B\*, C, L, f<sup>3</sup>, al 등에  
 10 있는 득법은 **προέρχεσθαι** (이 등사는 **προέρχεσθαι**가 신  
 약에서 9회 인용된 것에 비해 **προέρχεσθαι**가 신약  
 압도적<sup>으로</sup> 사용되었기 때문에 필경사가 무심결에 변경시킨 것  
 이 분명하다.

1:24 **σου** {B} ~~상당히~~ <sup>꽤</sup> 좋은 많은 증거 자료들  
 (A, C, D, Θ, 대부분의 소문자 사본들, Textus Receptus  
 가 따랐음)이 **σου** 뒤에 **εὐλογημένη σου ἐν γυναιξίν**  
 이란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필경사들이 이 단어들을 학고  
 하게 입증된 H2절에 따라 여기에 삽입시켰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이 구절이 이 절의 원문이었다면 꽤 폭넓고 다양한 조  
 20 기 증거 자료들 (Δ, B, L, W, Ψ, f<sup>1</sup>, 565, 700, 1241, syr<sup>m</sup>,  
 cop<sup>sa, bo</sup>, arm, geo, al)에서 이 구절이 생략 되었는지 설명할  
 만한 적절한 이유가 없다.

1:35 **γεννώμενον** {B} **ἐκ σου**란 단어들은

원서 130P 첫번째를

5 10 15 20 25 30

말에서 언급한 2 대칭 대명사가 있는 두 표현들에 이어 균형  
 을 맞추려고 한가시킨 큰기 첨가물이 분명하다. 이 확대된 특  
 법은 타티안(Tatian)의 Diatessaron을 통해 큰기 교회의에서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 특별 Ⓜ (문자적으로 "네<sup>어</sup> 안에")  
 )는 Dionysius Barsalibi (주후 1171년 4 사망)가 그의 누카  
 복음 주석에서 맹렬하게 주장한 것으로 페쉬타(Peshitta)의  
 큰기 사본들이 포함되어 있다(Curetonian 사본과 Sinaitic  
 Syriac 사본은 이 부분이 현존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특  
 법은 Pusey와 Gwilliam의 비평적 편집본 본문으로 채택되었다.

1:37 παρά τοῦ θεοῦ {B} 히브리어 7 7 7

를 가리키는 단어 ῥήμα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맥에서 παρά τοῦ θεοῦ란 특

다른서체

법은 "하나님<sup>어</sup>로부터 온 어떤 말씀(또는 약속)도 불가능이  
 없을 것이다 [실수가 없을 것이다]"를 뜻한다. 반면에 παρά

다른서체

τῷ θεῷ (또는 간단하게 τῷ θεῷ)란 특별법은 "하나님<sup>어</sup>  
 함께 하면"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1\* B, D, L, W, 565 등에 의해 강력하게 입증되고 있  
 는 첫번째 특별법은 창/사: 14에 <sup>대한</sup> 있는 70인역 본문 (μή ῥόυμα  
 τεῖ παρά τῷ θεῷ ῥήμα)라 일치시키기 위해 두번째  
 특별법으로 변경되었을 것이다.

1:46 Μαριάμ {B} 이어지는 송가를 부른 사

람이 누구를 표현되어 있는가? 모든 희랍어 증거 자료들과  
 거의 모든 번역본들과 교부의 증거 자료들을 포함하여

5                      10                      15                      20                      25                      30  
 적으로 우세한 증거에 따르면 마리아에 의해서 **방송되었다**. 반  
 변에 주를 Latin인 6개의 증거 자료들에 따르면 **엘리사벳에** ✓  
 의해서 **방송되었다**. 후자의 득법을 지지하는 증거 자료들은 세 개  
 의 Old Latin 사본들 (4세기 사본 a에는 **Elisabet**, 5 ✓  
 5 세기 사본 b에는 **Elisabel**, 7세기 아니면 8세기 사본인  
 1\*에는 **Elisabeth**)과 세 개의 교부 작품들 (아르메니아 번역  
 본과 어떤 라틴어 사본들에 따라 Irenaeus가 그의 **Against** ✓  
**Heresies** IV. viii. 1에서 [그러나 III. x. 1에서는 모든 사본  
 10 들이 마리아를 읽고 있다]; Dacia [유고슬라비아]의 Remes  
 iana 주교 Niceta; 어떤 [희랍어?] 누가복음 [희랍어?]  
 ] 사본들은 **Mary** 대신 **Elizabeth**를 기록되어 있다는 Ori  
 gen의 지적에 대한 Jerome의 번역)이다.  
 이 증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여기에는 세 가지 가능  
 15 성이 있다: (1) 원문은 단순히 **Καὶ εἶπεν, Μεγαλύνει**  
 ... 였는데 어떤 필경사들이 마리아를 첨가시켰고 다른 필경  
 사들은 엘리사벳을 첨가시켰다. (2) 엘리사벳이란 이름이 원  
 문이었다. 그러나 등정녀 순배에 관계된 교리적인 <sup>✓</sup>고찰 때문에  
 대부분의 필경사들이 이 이름을 마리아로 변경시켰다. (3)  
 20 가 **ἐπλήθυνεν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4절)의 주기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56절에 있는 **αὐτῆς**의 사용을 주목하면서 마  
 리아를 엘리사벳으로 변경시켰다.  
 아마 두 이름 모두 원문에 없었다는 가정도 인정할 수

5 10 15 20 25 30  
 있지만, 위원회는 압도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외적 증거와 내적  
 가능성들의 지지에 의해 εἶπεν의 주어로 Μαρίαν을 선택했다.

X

1 : 66 χεῖρ κυρίου ἦν {B} 이 절의 마지막  
 문장 ~~구절~~은 누가복음 기자에 의해 작성된 관찰문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표시하는 것은 누가의 특징이다; 참조, 2 : 50 ; 3 : 15  
 ; 7 : 39 ; 16 : 14 ; 20 : 20 ; 23 : 12)임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 서방 증거 자료들 (D, it<sup>d,ss<sup>2</sup></sup>, m, sy<sup>s</sup>)은 ἦν을 수제  
 시켰다. 그리고 이 절을 사가랴에 대해 들었던 사신들의 질문  
 안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그러면 주의 손이 이 아이와 함께

90

10 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무엇이 될꼬?")

X

1 : 68 κύριος {B} 여러 증거 자료들에 κύριος  
 가 없는 것은 유사문어 (類似文尾 : Homoeoteleuton) 때문이 될  
 경우가 무심결에 빠뜨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 : 70 τῶν ἀγίων ἀπ' αἰῶνος προφητῶν αὐτοῦ  
 {B} 네가지 특별들 중에서 τῶν ἀγίων ἀπ' αἰῶνος  
 προφητῶν αὐτοῦ와 τῶν ἀγίων ἀπ' αἰῶνος αὐτοῦ  
 προφητῶν이 더욱 근래의 특별들이며, 이들은 모두 필경사들  
 의 수장을 근래하였다. 이 특별들 중 첫번째 특별이 더 낫다  
 고 입증되었다.

X

1 : 74 ἐκ χειρὸς ἐχθρῶν {C} ἡμῶν이 권  
 가진 특별은 특히 시절에 있는 ἐξ ἐχθρῶν ἡμῶν이란 구  
 절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러운 확대문이다. τῶν 이나 πάντων  
 과 함께 쓰인 특별은 분명히 부수적인 것이다.



5 10 15 20 25 30  
ἰσας로 끝나는가? (Genitive)

반해한 득법인 소유격 형태의 득법은 알렉산드리아 계열과 서방 계열의 증거 자료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대표적 증거들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 주격 (Nominative) 형태의 득법은

5 ~~생략하게 된 것~~의 의미를 고치기 위해서 변경된 것이거나 아니면 고문서상 불찰 때문에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줄 끝에서 **εὐδοκίας**는 가장 작은 초생달 모양의 시그마의 존재 여부에 따라 **εὐδοκία**와 차이가 난다. 이 시그마는 전보라 더 작고, 이 시그마와 함께 표기할 경우 **ΕΥΔΟΚΙΑ**가 된다)

원문 P.133

이 의미는 거룩한 평화가 인간의 선택 뜻이 이미 있는 곳에만 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의 관생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그의 선택하신 기쁨에 따라 그가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다. 사해 두루마리들이 발견되기

15 이전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기쁨의 사도들”이란 표현에서 불가능한 것은 하나지만 이상한 표현이라고 종종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들이 여러 쿨란 찬송들(“그의 [하나님의] 선택하신 기쁨의 아들들” IQH iv. 32f.; xi. 9; “그의 [하나님의] 선택하신 기쁨의 선택받은 자들” viii.

20 6) 중에서도 히브리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생이화된 구문들로 특징지우는 누가의 한 본문(1장과 2장)에서 진짜 셈어(Semitic) 구문으로 간주될 수 있다.

2:15 οἱ ποιμένες {D} οἱ ποιμένες





5 10 15 20 25 30  
 ἡ μητὴρ (A, C, X, Γ, Δ, Λ, Π, Ψ, 28, 543, 565, 892, 1071, 1424) 로 대체시켰다.

3:1 ΤΕΤΡΑΡΧΟΥΝΤΟΣ (ter) 행 13: 1의 주석을

참조하라.

3:9 καρπὸν καλόν {C} 비록 syr<sup>f</sup>와 Ire

naeus<sup>lat mss</sup> 는 καλόν 을 생각했지만, 마 3:10에 있는 τετραρχόν 은 καρπὸν καλόν 이라고 읽고 있다(마 7:19에 있는 καρπὸν καλόν 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과도 비교하라). 여기서(마 3:10도 마찬가지로) 짧은 득법의 원문이며 대부분의

증거 자료들은 요한의 말을 예수의 가르침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καλόν 을 첨가시켰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καλόν 이 없으면 의미가 더욱 명확해진다(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뿐만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잘리게 된다). 또한 위원티우 대다수가 채택한 본문은 득법은

3:19 ΤΕΤΡΑΡΧΗΣ 행 13: 1의 주석을 참조하라.

3:22 Σὺ εἶ ὁ υἱὸς μου ὁ ἀγαπητός,

ἐν σοὶ εὐδόκησα {C} 3세기 초엽에 널리 유행했

던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란 서방 득법은 시 2:7에 따른 부수적인 득법으로 생각된다. 소수의 증거 자료들에서 볼 수 있는 3 인칭 사용(이 [사람]은 ... 그 안에 ...)은 이 말씀에 대한 마태의 형태(마 3:17)에 등화시켰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분명하다.

3 : 32 Σαλό {B} 원문의 독법은 Σαλό (P<sup>A</sup>, B, syr<sup>s, pal</sup>, cop<sup>sa, bo<sup>mss</sup></sup>, eth) 였는데 후에 필경사들이 마태복음의 평행분문 (마 1: 4-5)과 대상 2: 11에 대한 10인역 분문(대상 2: 11)에 있는 독법 Σαλμών에 등화시켰거나 아니면 사본 B의 곳 4: 20 이하의 독법 Σαλμών (사본 A는 Σαλμών)에 등화시켰던 것으로 생각된다. 누가가 안디옥의 시리아 사람 (Syrian) 이었다는 초기 전승에서 볼 때 Σαλό란 풀기가 하나의 시리아 전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할~~ 것이다 (페쉬타 번역본 곳 4: 20 에는 25로 기록되어 있다).

원서 P36 칸코

3 : 33 τοῦ Ἀμινδαβ τοῦ Ἀδμιν τοῦ Ἀρνί {C} 혼동되는 여러 독법들이 직면해서 위원회는 초기에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 유행했던 독법이 그 중 하나인 것이라고 여겨서 분문으로 채택했다.

4 : 4 ἄνθρωπος {B} 초기 자료에 지지를 받고 있는 가장 짧은 독법이 원문이 틀림없다. 긴 독법은 필경사들이 마태의 평행분문 (마 4: 4)에 등화시킨 것이거나 아니면 10인역 신 8: 3 ~~에 등화시킨 것~~ 즉 자책이며 →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 수정했다. 만일 긴 독법이 원문이라면 S, B, L, W, 1241, syr<sup>s</sup>, cop<sup>sa, bo</sup> 등에 그 단어들 이 없는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

4 : 5-12 마태의 시험에 대한 누가의 설명을 마태복음에 있는 시험 (마 4: 5-11) 순서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여러 Old Latin 증거 자료들 (it<sup>bs, lg, r</sup>)과 최소 한 개의 Vulga

5 10 15 20 25 30  
 te 사본 (G)과 누가 복음에 대한 Ambrose의 주석 등은 5-  
 8절을 9-12절 뒤에 위치를 바꾸어 놓았다.

4:17 ἀναπτύξας {C} 구약성서에 대한 유대

희망의 사본들이 두루마리 형태였기 때문에 "펼치다"란 등사

5 가 가장 적절하다. 비록 필경사들이 20절에 있는 πτύξας에

상관된 단어로 ἀναπτύξας 를 제시했을 수도 있지만, 사본

형태 (날장 형태)로 된 책에 익숙해 있던 필경사들이 ἀναπτύ

ύσσειν (이 단어는 신약에서 오직 여기서만 인용되었다) 대

신 해석적인 대응어로서 매우 익숙하게 사용했던 등사 ἀνοίξε

10 ιν ("펼치")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4:44 εἰς τοὺς συναγωγὰς τῆς Ἰουδαίας {B

} 예수의 갈릴리 사역 초기에 대한 이전의 누가의 언급 (

14절)에서 볼 때 특별 τῆς Ἰουδαίας (p<sup>75</sup>, i, B, C, L,

f<sup>1</sup>, 292, Lect, syr<sup>sh</sup>, al)는 분명히 더욱 난해하다. 그래서

15 필경사들이 마 4:23과 막 1:39에 있는 평행분문에 따라 이

단어를 τῆς Ἰουδαίας로 고쳐 썼다. 이런 난해함을 극복

하려는 또 다른 시도는 이 단어 대신 τῶν Ἰουδαίων (

W, l<sup>18</sup>)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었다. 여러 전치사들 중에서

여기서 사용된 εἰς가 원문에 포함된 것이며 ("예수는 ... (를)

20 들어가서 ... (이)서 설교하셨다") 이 전치사가 <sup>리용</sup>일상적인 전치

사 εἰν 보다 나은 득법이다.

5:17 οἱ ἵσαν ἐληλυθότες {C}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 자료들에 의해 지지받고 있는 득법 (이 득법에 따

다른 시제

다른 시제

5                      10                      15                      20                      25                      30

르면 예수의 대적자들이 갈릴리나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여  
 러 마을에서 왔다)의 반대편은 어떤 필경사들에게는 **οἱ**를 삭  
 제시키게 했으며 (S\*, 33), 또 다른 필경사들에게는 이 단어  
 대신 **οἱ**로 대체시키게 했다(D, it<sup>de</sup>, syr<sup>s</sup>). 그래서 모든  
 5 지역에서 온 사 랫 들은 법을 고치기 위해서 온 법자들이라는  
 뜻이 되었다.

5 : 17 αὐτόν {B} αὐτόν 이 τὸ ἰσθαι의  
 목격어가 아니라 주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필경사들이  
 이 단어를 αὐτούς(A, C, D, al), πάντας(K, Cyril),  
 10 αὐτοὺς πάντας(syr<sup>pal</sup>), τοὺς ἀσθενούντας(L<sup>1</sup>) 등  
 라 같은 복수 형태로 대체시켰다.

5 : 33 οἱ (2) {C} 막 2:18에 있는 평행분문  
 을 알고 있던 필경사들이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었다.

5 : 38 βλητέον {B} 등사성 형용사(gerundive  
 15 ; 신약성서에 있는 -τέος로 된 등사적인 형용사)는 소수의  
 증거 자료들에서 마태의 평행분문(9:17)에 따라 βέλλουσι  
 V으로 대체시켰으며, 이 마태 본문에서 또한 폭넓게 사용되었  
 던 생임 문구 καὶ ἀμφοτέροι συντηροῦνται (또는 τη  
 20 ροῦνται)가 파생되었다.

5 : 39 절을 인정함 {B} 이 절을 인정하는 외적  
 증거가 거의 없다고 한다. 여러 서방 증거 자료들에 이 절이  
 없는 것은 이 절이 주약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주절을 거부했던 마르시온(Marcion)의 영향 때문

	5	10	15	20	25	30
1	일	수도 있다.				
2	5:37	χρηστός	{B}	비교급 형태로 된 형용사		
3	는	비교를 더욱 명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필경사가 수정한				
4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로 편견을 가진 사람은 한결같이					
5	새것 (복음)을 원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그런 사람은 옛것 (					
6	물법)이 좋다고 만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절의 요점이다.					
7	6:1	σαββάτω	{C}	위원의 대다수의 의견에		
8	의하면 σαββάτω δευτεροπρώτω	관	구절이 더욱 난해한 특			
9	법이 분명하긴 하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채용해서는 안된다는					
10	것이다. δευτεροπρώτος는 신약성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볼 수					
11	없는 단어이며 A분 작업 과정에서 실수로 생겨난 vox null					
12	a로 간주된다 (아마도 어떤 필경사가 6절에 있는 εν έτε					
13	ρω σαββάτω에 상관은 단어를 πρώτω 제시했다. 그러다가					
14	다른 두번째 필경사가 4:31을 보고 δευτέρω라고 써넣었고					
15	πρώτω	관	단어는 이 단어의 글자들 위에 점을 찍어놓음으로			
16	삭제시켜 버렸다 [이런 방법은 단어를 삭제시키는 일반적인 방					
17	법이 있다]. 이어서 다른 필경사가 이 점들을 보지 못하고 실					
18	수로 두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본문에 제시했다).					
19	6:1	και ἡσθίων τοὺς σταχύδας ψύχοντες				
20	ταῖς χερσίν	{B}	본문에 채택된 특법은 다른 특법			
21	들의 기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 같다. 다른 특법들은 보					
22	두 각가지 면에서 볼 때 더욱 논리적인 연속성을 보여준다.					
23	6:2	ἔξῃστιν	{B}	ἔξῃστιν을 자연스럽게		





5 10 15 20 25 30  
 틀어온 것으로, 사본 작업 과정에서 중복오사(重複誤寫: Ditto  
 graphy)의 결과로 생겨난 것으로 간주된다.

6:38  $\gamma\alpha\rho\ \mu\acute{\epsilon}\tau\rho\omega$  {C} 본문에 채택된 특별  
 은 다양하고 독창적인 대표적 증거 자료들에 의해 입증된다.

5  $\alpha\upsilon\tau\omega$  ("네가 레아리는 바로 그 레아림으로...")의 원본은  
 복문서 기자의 것이라기 보다는 필경사들이 형식을 따져서  
 색(고) ~~한~~ 세련되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 같다.

6:42  $\pi\omega\varsigma$  {C}  $P^{45vid}$ , B,  $it^{e,ff^2}$ ,  $syr^s$ ,  $cop^{boms}$

10 등에 보존된 거절은 본문은 대부분의 증거 자료들에서  $\eta$  (마  
 7:4 ~~한~~ 처럼) 나  $\delta\acute{\epsilon}$  (1, 892) 나  $καί$  (1365, al) 등을  
 첨가시킴으로 교정되었다.

6:48  $\delta\iota\alpha\ \tau\acute{o}\ \kappaαλ\omega\varsigma\ \omicron\iota\kappa\omicron\delta\omicron\mu\eta\sigma\thetaα\iota\ \alpha\upsilon\tau\eta\acute{\nu}$  {B}  $\nu\nu$

15 점의 튼튼함에 대한 이유 ("집을 잘 지었기 때문")를 보여주는  
 누가의 특별한 이 구절은 십자가의 작업에 관한 앞의 주장  
 (방을 같이 파고 죽코를 반석 위에 놓았다)라 일치하며,  
 마태복음에 제시된 이유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를  
 종사했던 필경사들에 의해 대치되었다. 여러 증거 자료들( $P^{45vid}$ ,  
 700,  $syr^s$ )에 이 구절이 없는 것은 유사문미(類似文尾: Hom  
 oteleuton,  $\alpha\upsilon\tau\eta\acute{\nu}\ \dots\ \alpha\upsilon\tau\eta\acute{\nu}$ )로 인해 바뜨린 우연한  
 20 결과이다.

7:7  $\iota\alpha\theta\eta\tau\omega$  {C} 명령어  $\iota\alpha\theta\eta\tau\omega$ 의 더욱  
 단호한 어조는 필경사가 마태복음의  $\iota\alpha\theta\eta\sigma\epsilon\tauα\iota$  (마 8:8)에  
 등화시킴으로 완화된 것이다.

이단어

이단어

이단어

	5	10	15	20	25	30
	κ: 10	δοῦλον	{ C }	ἀσθενούνα	가	그 종을 구
	평하기	위해서	값싸	형식으로	원문에	첨가된 단어인지, 아니면
	ὑγιαίνοντα	다	모순된다고	여겼거나	또는	이 단어가 음복되
	는	것이라고	여겨서	분래	원문에	있던 것을 삭제시킨 것인지
5	뱉히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상반되는	점들을 보면서 위원회는
	외적	증거에	중점을	두어서	p <sup>15</sup> , ὶ, B, L, W, f, 700, al	
	등에	의해	지지되는	특별을	채택했다.	
	κ: 11	τῷ	ἑξῆς	{ C }	특자는	ἐν τῇ ἑξῆς
	관	구절을	볼 때	ἡμέρα	(“다음 날에”)	를 떠올리게 되며
10	ἐν τῷ ἑξῆς	관	구절을	볼 때는	χρόνον	(“이후에”) 관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누가가	다른 곳에서 τῇ ἑξῆς
	를	썼을 때	ἐν	을	같이	쓰지 않았다 (눅 9: 31; 행 2: 1; 27: 18).
	반면에	χρόνον	가	이해될	때	누가는 ἐν
	τῷ	καθεξῆς	(눅 8: 1)	관	표현을	썼다. 대체로 시간에 대
15	한	분명치	않은	표현이	존더	명확한 표현으로 변경되었을 가
	능성이	크다.	이와	마찬가지로	τῷ ἑξῆς	를 지지하는 이적
	증거가	τῇ ἑξῆς	를	지지하는	증거	보다 약간 더 낫다.
	κ: 11	αὐτοῦ	{ C }	사불	작성	과정에서 잊음을
	가능성과	기본적인	가능성	들을	고려해볼	때 ἱκανοί가 원문인
20	것	같이	여겨진다.	이	단어는	필경사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ἱκανοί	관	구절은	이상한 표현이며 신약
	성서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또
	는	우발적으로	(이어서	언급된	ΚΑΙΟ	를 볼 때) 삭제된 것

5 10 15 20 25 30

일 수 있다. 더군다나 이 단어는 누가가 좋아하는 단어이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총 40회가 언급되었는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2회 나타난다). 그러나 반면에 *καυτός* 가 없는 *αὐτοῦ*를 지지하고 있는 외적 증거가 본문 계열의 다양성과 시기적인 면에서 볼 때 매우 우세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대다수는 주저한 없이 짧은 득법을 택하기로 결정했다.

X

7:19 *κύριον* {C} 필립스들이 'Ἰησοῦν'란 이름을 삭제시켰을 리가 없으며 또한 *κύριος*는 누가적인 문체에 속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κύριον*이란 득법을 채택했다.

X

7:25 *ὑπάρχοντες* 이 주장을 강언하기 위해서 말은 증거 자료들 (D, K, Π, 28, 506, 565, 1010, al)은 *ὑπάρχοντες* (이 단어는 누가가 좋아하는 것이다)를 *διάρχοντες*로 대체시켰다.

X

7:28 *λέγω* {C} 다른 득법들의 기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 같은 득법은 접속사가 생략된 *λέγω*이다. 이 거절은 표현은 *ἀμὴν*이나 *δέ*나 *γάρ*를 삽입시킬 것으로 한 하되었다.

X

7:28 *γυναικῶν* {C} *προφήτης*란 단어가 그리스도를 이 비교에서 제외시키려고 했던 이전 유사한 필립스에게 의해 삽입된 것인지 아니면 아래의 필립스문 (11:11)에 등화시켰기 때문에 삭제된 것인지 결정하기가 매우 힘들다. 대체로 외적 증거는 짧은 득법을 지지하는 것 같다.

X

7:39 *προφήτης* {C} *προφήτης* 앞에 관사

5 10 15 20 25 30  
 가 삽입된 특별(B, 三)은 신 18:15에서 예언한 "그 예언자  
 "를 주석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B 1:21; 6:14;  
 7:40 등을 비교하라.

7:42 **πλεῖον ἀραπήσει αὐτόν** {C} 특별  
 5 **εἶπε** (이 단어는 질문의 거절은 품형을 완화시켜준다)는 필  
 경사가 못보고 빠뜨렸을 수도 있지만 (사본 A의 잘못된 품기  
**ἐπί**를 참고하라), 이 단어를 지지하고 있는 외적 증거가 특  
 별히 중요한 것이 아니며 주로 비잔틴 계열 본문이며 Textu  
 10 s Receptus에 포함되어 있다. 여러 형태로 **αὐτόν**의 위치가  
 여러 형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문체적으로 손질  
 을 가했기 때문이다. Δ, 1546, al 등에 **αὐτόν**이 없는 것은  
 우발적으로 생겨난 결과인 것 같다. 외적 압증의 우월성에 근  
 거해서 위협되는 P<sup>3,25</sup>vid, V, B, L, W, 三, Ψ, 192, 1241, sy  
 15 r<sup>ss,p</sup>, al 등에 의해 입증되는 **αὐτός**는 특수를 채택했다.

15 **αὐτοῖς** {B} 이 복수 형태는 알렉산드리  
 아 계열과 서방 계열과 카이사라 계열 등의 대표적인 본문들  
 에 의해 입증된다. 간수 형태 (마 2:55 과 막 15:41 등과 비교  
 하라)는 아마도 마르시온 (Marcion) 때문에 생겨난 그리스도  
 20 중심적 (Christocentric) 인 교정본으로 생각된다.

20 **τοῦ οὐρανοῦ** {B} 주로 서방 증거 자료들 (D, W, it<sup>a,b,d,e,ff<sup>2</sup>,b<sup>2</sup></sup>, sy<sup>r,ss,p</sup>) 인 여러 증거 자료들에 **τοῦ οὐ**  
**ρανοῦ**가 없는 것은 마 13:4 과 막 4:4 에 있는 평행본문에  
 따라 필경사가 등화시켰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이 단어가 마 13

5 10 15 20 25 30  
 (12절과 비교하라)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부각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근의적으로 삭제시켰기 때문이다. 여하튼 누가는 τὰ πετεινά에 항상 τοῦ οὐρανοῦ를 붙여서 썼다

(9:58; 13:19; 행 10:12; 11:6)

A: 26 Γερασσηνῶν {D} 여러 이름 특별들 중

에서 위원회 대다수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해 Γερασσηνῶν

을 채택했다: (a) 이 용어에 대한 외적 입증이 우수하다 (알렉산드리아 계열과 서방 계열의 대등가 되는 초기 본문들). ✓

(b) Γαδαρηνῶν은 이미 널리 퍼져 있는 마태의 본문 (

A: 28)에 따라 필경사가 등화시킨 것으로 간주되고, Γερεσσηνῶν은 아마도 오리겐(Origen)에 의해 최초로 제시된 수

정문 (마 28의 주석을 참고하라)으로 간주된다.

A: 29 καὶ χρόνῳ ἰκανῶ {C} 이 구절이

앞에 있는 것 ("오래 동안 키신들린 자")과 문법적으로 관

15 려된 것인가 아니면 뒤에 이어지는 문장 ("오래 동안 그는

옷을 입지 않았었다")과 관련된 것인가? 위원회의 대다수는

후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외적 증거 (P<sup>15</sup>, V<sup>\*b</sup>, B, L, E, 33,

1241, syr<sup>h</sup>, pal, cop<sup>sa, bo</sup>, eth)를 따르기로 했다.

A: 37 Γερασσηνῶν {D} 26절의 주석을 참고하

20 카

A: 43 ἥτις ἰατροῖς προσαναλώσασθαι ὅλον

τὸν βίον] {D} ἰατροῖς προσαναλώσασθαι ὅ-

λον τὸν βίον이란 절은 막 5:26의 모사문처럼 보인다. 누

5 10 15 20 25 30  
 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마가 불문을 이런 식으로 즉  
 능숙한 요약문과 **προαναλώσα**란 용어 (**δαπανήσα** ✓  
 대용어를 신약성서에서 단 한번만 기록된 희랍어)로 대체시킬  
 5 으로서 다시 기록해 놓았는 <sup>✓</sup>가혹한 의문이 생긴다. 반면에 이 구  
 절이 갖는 짧은 득법을 지지하고 있는 다양한 초기 증거가 거  
 의 압도적이다. 이런 상충되는 관찰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  
 의 대다수는 이 구절을 불문에 두기로 했다. 그러나 이 구절  
 이 정말 원문에 있었는지 의심이 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  
 괄호로 묶어 두었다.

✕ A: 44 ὀπίσθεν ἤψατο τοῦ κρασπέδου { C }  
 3 τοῦ κρασπέδου란 단어들만 마가 하는 다른 마태바

누가가 일치하고 있는 것들 중 하나이다. 위원회는 이것을  
 우연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이 단어가 포함된 득법을 지지하는 ✓  
 압도적인 외적 증거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 A: 45 Πέτρος { B } “그리고 그와 <sup>✓</sup>함께한 자들  
 이”란 구절을 첨가한 득법은 필경사들이 마가의 득법 **καὶ**

**ἔλεγον αὐτῷ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라 일치시키려고 했기 ✓  
 때문에 생겨난 것이거나, 아니면 베드로에게만 <sup>✓</sup>했던 예수의 책망  
 을 여럿에게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여하튼

20 위의 구절이 짧은 득법을 지지하는 P<sup>75</sup>, B, syr<sup>cs</sup>, pal, co  
 p<sup>sa</sup> 등의 증거력이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다른 득법들을 고려  
 해볼 여지가 없다.

✕ A: 45 καὶ ἀποβλήθουσιν { C } “그리고 땅



5 10 15 20 25 30  
 Id Syriac 의 증거력을 약화시킨다. 이따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에서도  $\dot{\iota}\acute{\alpha}\sigma\mu\alpha\iota$  는 수동태일 경우만 제타라고 항상 직접 목적  
 어를 갖고 있다. 이런 상충되는 자료들에 직면하여 위원리는  
 tous  $\acute{\alpha}\sigma\theta\epsilon\nu\epsilon\iota\varsigma$  (S, A, D, L, T, P, f, al 등에 의해  
 지지됨)란 단어들을 본문에 포함시키되 이 단어들의 원문성에  
 의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괄호로 묶어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정했다.

9:3  $[\acute{\alpha}\nu\alpha]$  duo {C}  $\acute{\alpha}\nu\alpha$  와 함께 쓴 특별  
 은 문맥에서 암시하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단순히 열두 제자들 뿐 아니라 어떤 사감도 두 벌 옷  
 은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절에서는 누가복  
 음서 기자에 의해 원문에서 썼던 것인가 아니면 후기 필경사  
 들에 의해 삽입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알렉산드리아 필경사

15 20  
~~A~~ 들이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할 것이라고 당연히  
 게 여겼던 알렉산드리아 필경사들이 평행본문들 (마 10:10; 막  
 6:9)과 일치시키기 위해  $\acute{\alpha}\nu\alpha$  를 삭제시켰는가? 이런 여러  
 가능성들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리는 이 단어를 본문에 두되  
 괄호로 묶어 두기로 결정했다 (번역본들 중에서 단지  $it^d$  와  
 syr<sup>h</sup> 와 goth 만이  $\acute{\alpha}\nu\alpha$  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번역본들은 이 단어를 번역하느라고 생략시킨 것인지 아니면  
 원래 이 단어가 없는 희랍의 본문을 번역 원본으로 삼았기  
 때문인지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번역본 syr<sup>s</sup> 는 “그리고 두  
 벌 옷까지도 안들된다”로 읽고 있다).

9:7 τετραάρχης 행 13: 1의 주석을 참고하라.

9:23 καὶ ἄρα τὸν σταυρὸν αὐτοῦ καθ' ἡμέραν D와 it<sup>a,d,l</sup>에 이 절이 없는 것은 다마 유사 문두 (類似文頭: Homoeoarchton, KAI A ... KAI A) 때 문에 발생한 필경사의 실수라고 볼 수 있다.

9:23 καθ' ἡμέραν의 구절은 P<sup>25</sup>, v<sup>1\*</sup>, A, B, K, L, M, R, Θ, 三, Π, 1, 13, 33, 69, 124, 131, vg, syr<sup>s,p,h,with\*</sup>, cop<sup>sa,ba</sup>, goth, arm, (eth), 고대 사본들 Jerome에 의한 등의 증거 자료들에는 기록되어 있다. 반면에 이 구절은 v<sup>c</sup>, C, D, E, F, G, H, S, U, V, X, Γ, Δ, Λ, 여러 소문자 사본들, it<sup>a,b,c</sup>, e, ff<sup>2</sup>, b, f, syr<sup>s,h,m,g</sup>, Origen 등에는 없다. 이 단어들에 평행분문들 (마 16:24; 막 8:34)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생략된 것 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필경사들이 고전 15:31에 따라 철자시켰 다고 보는 것이 가능성이 더욱 크다.

9:26 λόγους {B} 막 8:34의 주석을 참고하라.

9:35 ἐκλελεγμένοι {B} 누가의 원문은 의 심할 것도 없이 ἐκλελεγμένοι이다. 이 단어는 준전문적 의미 (quasi-technical sense)로 신약성서에서 단지 여기에서 만 언급되었다. 좀더 일반적인 표현들을 갖고 있는 다른 득법 들은 필경사들에 의한 등화 때문에 생겨났다 (ἐκλεκτός, 23:35; ἀγαπητός, 막 9:7과 눅 3:22; ἀγαπητός, ἐν εὐδόκῃσιν, 마 19:5)

9:49 εἰδώς {C} εἰδώς ("아시고")와 ἰδών

5 10 15 20 25 30  
 (“보시라”) 사이에 명백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지만, 위원  
 회의 대다수는 존기 알렉산드리아 증거 자료들(Δ, B)과 안  
 디옥 증거 자료들(syr<sup>s</sup>)에 의해 입증되는 특법을 채택했다.

9:54 αὐτοῦς {C} 55절과 56절에 있는 긴 특  
 법과 마찬가지로 ως καὶ ἠλίως ἐποίησεν 이란 특법은  
 근대 교회의서 상당히 넓게 유통되었다. 그러나 p<sup>45,45</sup>, Δ, B,  
 L, 3, 1241, it<sup>1</sup>, syr<sup>s</sup>, cop<sup>sa,bo</sup> 등과 같은 존기 증거 자료들에  
 이 절이 없다는 사실은 이 절이 전혀 관계가 없는 문서나  
 10 구전 자료에서 온 주석문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9:55 αὐτοῖς {C} 본 절에 첨가시킨 구절(  
 καὶ εἶπεν, Οὐκ οἴδατε ποίου πνεύματος ἐστε  
 )와 56절에 첨가시킨 구절(ὁ γὰ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οὐκ ἦλθεν ψυχὰς ἀνθρώπων ἀπολέσαι ἀλλὰ  
 15 σωῆσαι) 들은 54절에 첨가시킨 구절(54절에 대한 주석을 찬  
 순하라) 보다 좀더 잘 입증되고 있지 않다. 56절에 첨가시킨  
 구절은 눅19:10을 반영한 것이다(참고, 요3:17)

9:59 [κύριε] {C} B\*, D, syr<sup>s</sup>, al 등에  
 κύριε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든다. 무슨  
 20 등기로 필경사들이 이 단어를 삭제시켰는가? 반면에 이 단어  
 는 61절이나 마8:2에 있는 평행본문에 따라 쉽게 첨가시킬  
 수 있는 단어였을 것이다. 그러나 κύριε가 삭제된 것은 사본  
 작업 과정에서 생긴 실수(ΕΙΠΕ ΚΕ ΕΠΙ ΤΡΕΨΟΝ)

5 10 15 20 25 30  
 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본문에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원문성에 대해 의혹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괄호로 묶어 두었다.

9: 62 ἐπιβάλλων τὴν χεῖρα ἐπ' ἄροτρον  
 5 καὶ βλέπων εἰς τὰ ὀπίσω {C} 여러 증거  
 자료들 (p<sup>asvid</sup>, D, it<sup>(ω,cb),c,d,e,(cb,cq)</sup>, al)에서 분사들의 순서가  
 이상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εἰς τὰ ὀπίσω βλέπων  
 10 καὶ ἐπιβάλλων τὴν χεῖρα αὐτοῦ ἐπ' ἄροτρον) ✓  
 아마도 필경사의 부주의 때문에 생겨난 것 같다. 여하튼 이 특  
 15 법은 거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 비록 αὐτοῦ가 문체적인  
 이유 (문의 부분 <sup>이항도원</sup> 필요치 않기 때문에)로 인해 필경사들이 ✓  
 삭제시켰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위원회의 대다수는 이 단어  
 20 를 지지하고 있는 p<sup>as</sup>, B, 이어, f, al 등의 증거력에 같은  
 인상을 받았다.

15 9: 62 τῇ βασιλείᾳ {C} 행정사 εὐθετος  
 는 독립적인 여격 <sup>→</sup> 형태이거나 아니면 εἰς와 관련된 대격 (ac  
 cusative) 형태라고 분석할 수 있다. ἐν τῇ βασιλείᾳ <sup>관</sup> ✓  
 20 특별문 주의 말씀 (logion)에 대한 다른 의미를 뜻하는 것  
 같다 (이런 <sup>사</sup> 많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유  
 25 익한 수많은 뜻된다). 위원회의 대다수의 의견에 의하면 다른 ✓  
 특별들의 기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특별은 τῇ βασιλείᾳ  
 이다.

10: 1 ἑτέροις {C} 내적 가능성들을 고려해

5 10 15 20 25 30  
 볼 때 원문을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필경사들이  $\delta\upsilon\omicron$ 를  
 중복되는 것으로 여겨서 삭제시켰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 단  
 어를 의어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서 삽입시켰을  
 수도 있다), 위원회는  $P^{45}$ , B,  $syr^s$ , Diatessaron, al 등이 의  
 해 지지받고 있는 득법을 채택했다.

5

10:1 [ $\delta\upsilon\omicron$ ] (1) {C} 예수께서 지명해서

파송한 사감들의 수가 70명인가 아니면 72명인가? 타적 증거  
 자료들은 거의 고르게 나누어져 있다. 한편으로 대부분의 Old  
 Latin과 Sinaitic Syriac과 더불어 알렉산드리아 계열과  
 10 사방 계열의 대물자 되는 주요한 본문들은 "72명"이란 수  
 를 지지한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다른 알  
 렉산드리아 증거자료들 ( $\Sigma$ , L,  $\Delta$ ,  $\Lambda$ ,  $\Xi$ )과 가이사라 증거  
 자료들 ( $f^1$ ,  $f^B$ )은 "70명"이란 수를 지지한다.

15 내적 증거를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들을 파악하기가  
 20 좀처럼 쉽지 않다. 70명 또는 72명의 제자들의 파송에 대한  
 내용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어떤  
 숫자가 그 상징을 표현하는 데에 더욱 적절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상징적 표현이 예수에 의해 직접 사  
 용된 것이냐 아니면 누가복음 기자가 사용한 것이냐 아니면  
 이 내용을 전승시킨 사감들이 사용한 것이냐에 따라서 무수하  
 게 생겨날 수 있다. 타적 증거가 상반된 입장을 균형있게 지  
 지하고 있으며 내적 관찰도 결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  
 기 위해서 위원회의 대다수는  $\delta\upsilon\omicron$ 를 본문에 두되 괄호로

5 10 15 20 25 30

문의 두기로 했다.

[ "70" 이란 개념은 70인역본 (LXX = Septuagint) 과 기독교 전승에서 정립되어 있던 것이다. 구약성서에서 "70" 이란 숫자가 언급되는 예가 지배적이다. 즉 야곱의 삶에 70 영혼들, 70 장로들, 70 자손들, 70 제사장들, 중요한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할 때 언급된 70 년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여러 숫자들 중에서 72라는 숫자는 소 칠십이 두를 제물로 드렸다 (민31:38) 는 단지 한 구절에서만 언급되었다. 72란 숫자가 Aristeeas 서신에서 (70인역본을 번역한 사관들의 수로) 언급되었고 Enoch III서에서 언급되었을지라도, 이런 드문 예들은 70이란 숫자가 포함된 전승의 중요성과는 비교가 안된다.

그러나 ἑβδομήκοντα δύο란 득법이 10:1과 17절에서 언급되었으며, 더욱이 이 득법이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다. 복음서에서 P<sup>15</sup>, B, D, Old Syriac, Old Latin 등에 의해 지지받고 있는 득법은 일반적으로 원문으로 간주한다. 또한 70이란 득법이 교회적으로 표준화된 것 "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면 위의 입장을 반박할 여지가 없다. 위의 입장에 반대하는 증거 자료들은 전적으로 교회적으로 표준화된 것을 보여준다. 이 자료들의 수가 많다는 것 또한 이해할 만 하다. 그리고 이 자료들 중에 초기에 속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표준화 과정이 얼마나 일찍 시작되었는가를 입증해 줄 뿐이다. 이런 이유들로 ἑβδομήκοντα δύο는 본문으로 채택되어야 하며 괄호는 없어야 한다. K. A. ]





인 표현으로서 간주했다. 동시에 ἐλθῶν을 지지하는 입장과 반  
 대하는 입장이 나누어져 있다는 점에서 이 위원들은 이 단어  
 를 괄호로 묶어 두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대다수  
 의 위원들은 탁월한 사본들에 의해 지지되는 특별에 영향을  
 5 받아서 ἐλθῶν을 괄호 없이 본문에 두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  
 리고 γενέσθαι κατὰ 를 누가의 특별한 어순이라고 규정하기  
 를 고려하면서, γένόμενος가 생략되어 있는 증거 자료들을  
 고려하여 이 단어를 괄호로 묶어 두는 것이 필모하다고 생각  
 했다.

10 : 38 αὐτόν { C } 만일 이 단어가 원문에 있었  
 6 ~~다면~~ "그녀의 점으로 (그를 명칭하였다)"란 구절이 원문에  
 있었다면 이 구절을 삭제시킨 등기가 분명하지 않다. 더욱이  
 직설적인 표현 ὑπεδέξατο αὐτόν 은 좀더 직설한 원가어  
 를 필모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필경사들이 αὐτῆς ἑαυτῆς  
 15 αὐτοῖς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οἰκίαν이나 οἰ  
 κον 등의 여러 형태들을 원가시켰다.

10 : 41-42 μεριμνᾶς καὶ θορυβᾶσθαι περὶ πολλά,  
 εἰς δὲ ἐστὶν χρεία { C } 희귀한 등사 θορυβ  
 20 ἄσθεσθαι (P<sup>3,45,75</sup>, N, B, C, D, L, W, H, f, al)는 필경  
 사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을 것 같다. 그래서 필경사들이 이 단  
 어를 좀더 자주 사용된 등사 τυρβάζειν (A, K, P, Δ, Π,  
 Ψ, f<sup>13</sup>, al)으로 교체시켰다. 대부분 다른 이문(異文)들은 마  
 르다가 그때 속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을 단순히 반영하고  
 있는



11 : 2 εἰθέτω ἡ βασιλεία σου {B} 누가적인<sup>✓</sup>  
 형태의 주기드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문(異文) 특별으로는  
 “당신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라는 간구문이다. 이 간구문은 두개의 소문자 사본 안에서 사  
 5 실 거의 같은 어순으로 보존되어 있다(εἰθέτω τὸ πνεῦμα  
 σου τὸ ἅγιον ἐφ’ ἡμᾶς καὶ καθαρῶσάτω ἡμᾶς, 11세  
 기 사본 700에 보존되어 있음; 1153년경 것으로 추정되는  
 사본 162는 σου τὸ πνεῦμα로 어순이 바뀐 것과 ἐφ’ ἡμ  
 10 ᾶς가 팔락된 것 외에 모두 일치한다). 이 같은 특별이 4세기 5  
 세기의 ~~어~~ 누가복음 ~~어~~ 사본들 가운데 유행했었다는 것이 Cap  
 padocia 지방의 Nyssa의 Gregory의 저서들과 Turin의 Max  
 imus의 저서들 가운데 이 간구문이 인용되었다는 것에 의해  
 입증되었다. Gregory는 주기드문에 대한 그의 설교에서 하나뿐<sup>✓</sup>  
 15 ① 나라의 인재에 대한 간구 대신에 누가는 εἰθέτω τὸ ἅγιον  
 πνεῦμα σου ἐφ’ ἡμᾶς καὶ καθαρῶσάτω ἡμᾶς 로  
 기록했다고 명백하게 주장했다. 이러한 Gregory의 주장은 Max  
 imus에 의해 입증되었다. Maximus는 마 6:10을 주석하면서 다  
 른 복음서 기자들이 ‘성령’ 이라고 부르던 것을 마태는 ‘하  
 나뿐 나라’ 로 바꾸어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20 증거로 Maximus는 (아마도 Gregory로부터 인용한) εἰθέτω  
 σου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καὶ καθαρῶσάτω ἡμᾶς 란<sup>✓</sup>  
 구절을 제시했다.  
 ← 이러한 간구문에 대한 최초의 흔적은 Tertullian에 의해

5 보~~지~~뢰이 있다. 그는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 있는 다섯개의 간  
 구문들 (그 자신의 본문인지 Marcion의 본문인지 아니면 둘다  
 10 확신성이 있는 것인지)를 간략하게 주석하면서 아버지를 호칭  
 한 후에 성령에 대한 간구문을 먼저 두었으며 이어서 하나뿐  
 5 나라에 대한 간구문이 제시되었다. <sup>그러므로</sup> 어떤 초기 서방 제정 본문  
 (Marcion의 본문이거나 아니면 Tertullian의 본문)이 Gre  
 gory에 의해 인용되었던 특법을 갖고 있었으며 ~~이~~ 들린었다. 물론  
 이 특법은 ἀγιασθήτω τὸ ὄνομα σου가 있는 자리에 대치  
 10 되어 있었으며 들린었다. 마르틴 Bezae 사본은 성령에 대한  
 그 간구문의 나머지 부분 ~~이~~ 보충할 생각을 했었다. 왜냐하면  
 이 사본에는 ἀγιασθήτω ὄνομα σου란 간구문이 ~~뒤에~~ ἔφ'  
 ἵμας ἐλθέτω σου ἢ βασιλεία σου <sup>앞에</sup> ~~이~~ 있기 때문이  
 15 다.  
 이런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선 Bezae A본에  
 15 있는 ἔφ' ἵμας란 구절이 성령에 대한 초기 간구문에 대한  
 증거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론 신빙성이 없다. ~~하나~~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위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란 기도는 하  
 20 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찬조, 신 12:11; 14:23; 16  
 :6, 11. 70인역본은 이 부분을 "나의 이름이 거기서 불러지  
 기 위하여"로 기록하고 있다)란 구약의 구절과 잘 일치된다.  
 더욱이 Tertullian의 본문은 그가 Montanist였던 시기에 ~~작성~~ <sup>작성</sup>된  
 25 논문에서 온 것이다. 이때 그는 성령을 내포하고 있는 본문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 주기도문에 대한 그의 ~~이전~~ <sup>이전</sup>의

5                    10                    15                    20                    25                    30

구석에서 그러한 간구문의 존재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그 이문(異文) 득법은 주기도문 원문에 예배 의  
 식을 위해 채용된 것이 분명하다. 아마 이 득법은 세례를 배  
 풀 때나 또는 안수할 때 사용되었을 것이다. 정결케 하시는  
 5 성령의 강림은 분명히 기독교적이며 교회적인 개변이다. 그런데  
 이런 개변이 원문에 있었다면 이 개변이 대다수의 증거 자료  
 들 안에서 보다 유대적인 개변으로 대처된<sup>✓</sup> 이유를<sup>✓</sup> 설명할 길이<sup>✓</sup>  
 없다.

10                    15                    20                    25                    30

11:2 σου (2) {A} 대다수의 증거 자료들  
 은 σου (2) 뒤에 마 6:10에서 인용한 γεννηθῆναι τὸ θεῖον  
 ἰσχύ σου, ὡς ἐν οὐρανῷ καὶ ἐπὶ τῆς γῆς 를 삽입시켰  
 다. 만일 누가의 원문이 이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면 P<sup>75</sup>,  
 B, L, f<sup>1</sup>, vg, syr<sup>cs</sup>, arm, al 등과 같은 여러 증거 자료들  
 에 이 단어들이 삭제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sup>✓</sup>  
 15 없다.

11:4 μὴ εἰσερέξῃς ἡμᾶς Marcion은 본래의  
 간구문을 <sup>✓</sup>2행<sup>✓</sup> 신학적. 입장에<sup>✓</sup> 따라<sup>✓</sup> 수정한 μὴ ἁφῆς ἡμᾶς εἰσερε  
 ξῆναι ("우리가 사형에 빠지는 것을 미안하지 마옵소서)로  
 기록하고 있다.

20                    25                    30

11:4 πεπρασμένον {A} 탁월한 여러 증거 자료  
 들 (P<sup>75</sup>, <sup>\*,a</sup>, B, L, f<sup>1</sup>, 700, vg, syr<sup>s</sup>, cop<sup>sa,bo</sup>, arm, geo, al  
 )은 본문을 유행하고 있는 마태적 주기도문 형태(마 6:13)  
 와 일치시키려는 유희를 물리쳤다.



5                      10                      15                      20                      25                      30

밝혀려고 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11:13 [ ὁ ] ἔξ οὐρανοῦ { D } ὁ πατήρ ἡμῶν  
 ὁ ἐν τοῖς οὐρανοῖς σώσει ἡμᾶς ἡμῶν ὁ ἔξ οὐρανοῦ ἢ ὁ οὐράνιος ἢ ἡ  
 5                      10                      15                      20                      25                      30  
 문(異文) 특별들이 생겨나게 된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  
 다. ἔξ οὐρανοῦ ("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로  
 2의 부터 국시라") 와 ὁ ἐν οὐρανοῦ ἔξ οὐρανοῦ 를 의미하는  
 한국적인 구문으로 여겨지는 ὁ ἔξ οὐρανοῦ 사이를 유명하기  
 가 상당히 어렵다. 더욱이 외적 증거 자료들도 균등하게 나누  
 10                      15                      20                      25                      30  
 어져 있고 내적 <sup>참</sup> 근거에 근거한 논의도 확신이 가지 않기 때  
 문에 대다수의 위원들은 마침내 본문에 ὁ 를 포함시키기로 결  
 정했다. 그러나 이 단 ~~어~~ <sup>어</sup>가 원문에 있었는지 의혹이 생긴다는  
 것을 풀사하기 위해 말로로 묶이 두기로 했다.  
 11:13 πνεύμα ἄγιον { B } πνεύμα ἄγιον 을  
 15                      20                      25                      30  
 지지하고 있는 외적 증거 자료가 무시할 분 아니라 마태의  
 ἀγαθὰ ( 1:11 ) 과 마찬가지로 본 절 상반절과 동화시킴으로  
 여러 다른 특별들이 생겨 ~~났~~ <sup>났</sup>다.  
 11:14 [ , καὶ αὐτὸ ἦν ] { D } 한편으로 καὶ  
 20                      25                      30  
 αὐτὸ ἦν κωφόν 이란 표현은 누가 문체에 있는 셈이 (S  
 emitism)임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짧은 특별을 지지하  
 는 외적 증거가 <sup>비상당히</sup> 무시하다. 이러한 상충되는 점을 반영하기 위  
 해 위원회는 이 단어를 본문에 넣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말로  
 로 묶이 두기로 했다.

2의 부터 국시라") 와 ὁ ἐν οὐρανοῦ ἔξ οὐρανοῦ 를 의미하는

5 10 15 20 25 30  
 11:23 ἀκορπίσει {A} ἀκορπίσει 뒤에 με를 첨  
 가시킨 경우는 너무 흔해서 거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서 필  
 경 A의 실수인이 분명하다.

5 11:24 [τότε] λέγει {C} 외적 증거에 근거해  
 사 대다수의 위원들은 τότε를 포함시키곤 하였다. 그러나  
~~말이~~ 마 12:44에 있는 평행 본문에 ~~따라서~~ ~~말경사~~ 등 해서  
 키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괄호로  
 묶어 두기로 결정했다.

10 11:25 ἀσπαρμένον {B} 본 내용에 대한 누가  
 의 원문 형태는 p<sup>45</sup>, v<sup>2</sup>, D, Θ, 700, 대부분 Old Latin, O  
 Id Syriac, al 등에 보존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필경사들은  
 ἀσπαρμένον 말이나 뒤에 σχολάζοντα란 단어를 καί와 한  
 짝 또는 καί 없이 소개하고픈 충동을 거역할 수 없었을 것  
 이다.

15 11:33 [οὐδέ ὑπὸ τὸν πόδιον] {D} 누가  
 는 마가(그리고 마태)의 평행 본문에 있는 단어 즉  
 마 16에서 πόδιον이란 단어 사용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포함된 구절과 함께 ~~이런이유~~ 원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가  
 능성이 크다. 반면에 이 구절은 무세하고 다양한 외적 증거들  
 20 에 의해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위원들은 이 구절을  
 완전히 삭제시키지 못하고 괄호로 묶어 두기로 했다.

11:42 ταῦτα δὲ εἶπει ποιῆσαι κοκεῖνας μὴ τα  
 ρεῖνας {B} Marcion은 이 구절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말(12:44)  
에 따라서

5 10 15 20 25 30  
 수 없다고 생각해서 <sup>그위</sup> 누가 복음에 편견론에서 이 단어들을 삭제  
 했다. Bezae A본에 이 단어들 <sup>이</sup> 없는 이유는 필경사가 작  
 하면서 지나쳐버렸거나 아니면 Marcion <sup>계열</sup> 본문에 영향을 받  
 았기 때문일 것이다.

5 11:48 οἰκοδομεῖτε {C} οἰκοδομεῖν 은 보통 타  
 등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필경사들은 47절에서 가져  
 온 적절한 목적어를 덧붙였다.

10 12:1 ἥτις ἐστὶν ὑπόκρισις, τῶν Φαρισαίων  
 {C} 세신한 알렉산드리아 <sup>계열</sup> 필경사들이 ἥτις ἐστὶν ὑπό  
 κρισις란 구절을 Ἰούδας와 τῶν Φαρισαίων <sup>이</sup> 사이로 옮겨 놓  
 으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위선을 가리킴)을 주의하라"는  
 아주 간단 명료한 문장을 제시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대다수의 위원들은 이 이순은 누가 자신의 것이며 인히려 다  
 른 필경사들이 '준더쉬운' 이순으로 변경시켰을 가능성이  
 15 더욱 크다고 ~~생각~~ <sup>간주</sup> 했다.

20 12:11 πῶς ἢ τί {C} 비록 ἢ τί가 마 10:19  
 에 있는 평행 구절에서 온 삽입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  
 다수의 위원들은 우세한 타적 증거에 근거해서 이 단어를 본  
 문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겼다. 그리고 여러 사방  
 20 계열 증거 자료들에서 이 단어들 <sup>이</sup> 활각되어 있는 이유는 필  
 경사가 손질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2:14 κριτήν ἢ μεριστήν {B} 다양한 이문  
 (異文) 득법들이 생겨나게 된 원인은 희귀한 단어 μεριστής



5 10 15 20 25 30  
 절은 우연하게 칼락된 것이 분명하다. 대냐하면 이 절이 원문  
 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외적 증거의 비중이 무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누가와 같은 세소한 차이가 20절에 있는 εἶπεν에서  
 22절의 εἶπεν(말하는 사람이 다름)으로 지나쳐버렸을 리도  
 5 없다.

후대에 몇몇 사본들은 이 절 끝부분에 전형적인 동형인 ἄ  
 ὕτα λέγων ἐφώνει· ὁ ἔχων ὠτα ἀκούειν ἀκούετω  
 (아마도 A: A이나 마11:15에서 온 것으로 간주됨)을 첨가  
 시켰다.

10 12:22 πολλοὶς [αὐτοῦ] {C} αὐτοῦ는 누가  
 의 관용 어구일 뿐만 아니라 무세한 외적 증거에 의해 지지  
 받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위원들은 이 단어를 채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몇몇 중요한 초기 증거 자료들 (P<sup>45vid,75</sup>, B)에  
 는 칼락되어 있기 때문에 괄호로 묶어 두기로 했다.

15 12:27 οὐκ ἔσται οὐ κοινὴ οὐδέ νῆθει {D}  
 한편 주저한 후에 대다수의 위원들은 A본 D, it<sup>d</sup>, syr<sup>cs</sup>,  
 al 등의 득법 οὐτε νῆθει οὐτε ὑφαίψει ("그들은 실은  
 만들지도 아니하며 짜지도 아니한다")를 뒤에 나오는 솔로몬  
 의 뜻을 고려하여 필경 A가 문해상 수정을 가한 것으로 간주  
 20 하여 거부하였다(마6:28에 관한 주석을 참조하라)

12:31 αὐτοῦ {C} τοῦ Θεοῦ 가 αὐτοῦ로 대체  
 되었을 가능성보다 오히려 거꾸로 αὐτοῦ가 τοῦ Θεοῦ로  
 대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사실 Bezae A본에서도 이런 경우

5 10 15 20 25 30  
 를 볼 수 있다). 특별 τῶν θεῶν καὶ τῶν δίκαιουσύνων  
 ἑαυτοῦ는 마 6:33에 있는 평행 본문에서 온 것이다.

p<sup>25</sup>를 기록한 필경사의 특유의 표현법 중 하나는 인칭대명사를  
 생략시키려는 경향이다.

5 12:39 οὐκ {B} 누가의 원문에는 ἔγρηγόρησεν  
 οὐ καὶ란 키절이 없었던 것 같다. 필경사들이 (p<sup>25</sup>, s<sup>1\*</sup>, al  
 등에 보존된) 이 짧은 특별을 평행 본문 (마 24:43)에 있는  
 긴 특별에 등락시켰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원문에 있  
 던 단어들 을 삭제할 적절한 이유가 없다.

10 12:16 πῶς οὐκ οἴσασθε δοκίμασθαι {C} 앞  
 서 이미 언급된 결과 일치시키기 위해 필경사가 οἴσασθε 를  
 첨가시켰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필경사들이 예수의 책망에  
 강요점을 두기 위해 이 단어를 생략시켰을 가능성이 더 크다  
 (“왜 너는 ... 분별하는 법을 모르느냐?”는 지식의 부족  
 함을 의미한다; “왜 너는 ... 분별하지 않느냐?”는 자신  
 의 지식을 사용하려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15 13:7 ἔκκρονον [οὐν] {C} word가 원문과 다른가에 대하여  
 한 확실성이나 단어 자체의 불질적인 신빙성에 관한 규명이  
 분명치 않으며 또한 이 상반된 견해에 대하여 의적 증거가 흔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20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이 단어를 본문에 두어야 할 필요  
 성을 느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원문이냐에 대해 어느정도 의  
 식이 생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괄호로 묶어 두었다.

13:9 εἰς τὸ μέλλον - εἰ οὐ μὴ γέ {C}

3 동결법 (頓絶法 : 문장을 문장에서 그치는 것)을 베풀고  
 있는 (p<sup>5</sup>, ∴, B, L, al 등에 의해 지지받고 있는) <sup>이반해한</sup>  
 특법은 εἰς δὲ μῆν γε, εἰς τὸ μελλον 으로 읽게 하기  
 위해 대부분의 증거 자료들은 위치를 바꿔 놓았다.

5 13 : 19 εἰς δέσποιν ὤ C } 필경사들이 누가 본  
 문을 이미 유행하고 있는 마태 본문 (13 : 32) 과 일치시키기  
 위해 원문에 있던 μέγα 를 삭제시켰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은 커다란 나무 사이에 대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μέγα  
<sup>원문에</sup> 를 첨가시켰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첨가 현상은 마태의  
 10 평행 본문에 있는 소수의 증거 자료들 (syr<sup>p(1ms)</sup>, cop<sup>sa</sup>, eth,  
 geo<sup>B</sup>) 안에서 볼 수 있다.

15 12 : 21 ἐπεὶ λέγων ἐπιτῶ ὤ C } 위원회가 태  
 행한 특법은 협소하게 지지받고 있지만 다른 특법들의 기원에  
 대해 <sup>이</sup> 잘 설명해줄 수 있는 것 같다. 이실드게 분사 ἰδὼ  
 γων (이 단어는 마마드 리브리아의 절대형 부형사 <sup>infinitive</sup>  
<sup>absolute</sup>) 구문을 나타내는 것 같다: " 그는 진실로 너에게  
 말할 것이다" )을 <sup>사용</sup>했기 때문에 필경사들은 이 단어를 역  
 설법 (λέγων) 으로 바꾸었거나 또는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겨  
 삭제시켰을 것이다.

20 13 : 21 οὐκ οὐδὲ [ ὑμᾶς ] πότεν εἰστέ ὤ C }  
 구절 안에 있는 이들 단어들에 대한 여러 이본 특법들은  
 25절 (Marcion은 이절에서 ὑμᾶς 를 삭제시킨 것 같다) 에 있  
 는 이 구절이 보여주는 원문으로서의 확실성과는 대조를 이룬

각은만  
근

각은만  
근



5 10 15 20 25 30  
 마 11 : 11 ) 으로 필경사였다. 몇몇 좋은 자료들 (A, 2174, syr<sup>c</sup>)  
 은 세 판이 모두를 통합시켰다.

14 : 17 ἔτοσιμα ἔστιν { C } 마태의 평행 본문 ( 마 22 : 4 ) 에 있는 πάντα ἔτοσιμα란 표현에 근거해볼 때 여러 필경사들이 ἔστιν 뒤에나 ἔτοσιμα 앞에 πάντα를 첨가시킨 것은 자연스럽다. ἔστιν과 εἶστιν 중에서 무시한 증거 자료들은 전자를 지지한다.

14 : 27 유사문미 (類似文尾 : Homoeoteleuton) 때문에 전체가 M\*, R, Γ, 29, 47, 57, 60, 69, 71, 213, 245, 482, 544, 659, 692, 1279, 1574, syr<sup>s</sup>, cop<sup>booms\*</sup> 등에서 우발적으로 삭제되었다.

15 : 16 χορτασθήσιν ἐκ { C } 다양한 계열의 증거 자료들과 A기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χορτασθήσιν ἐκ란 특별한 방법을 채택했다.

15 : 21 υἱός σου { B } 몇몇 좋은 A본들 (A, B, D, 700, al) 은 특별히 ποιήσόν με ὡς εἶνα τῶν πρῶτων σου를 지지하고 있지만 위원회는 이 판이들이 우연하게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원문에서 삭제되었다고 간주하기보다는 오히려 용의성 없는 필경사들에 의해 (19절로부터) 첨가되었다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

16 : 12 ὑμέτερον { B } 특별히 ἡμέτερον (B, L, al) 은 친된 재물의 기원을 표현하려고 (11절) 후대에 신학적으로 수정 (= "아버지와 아들에게 속한 것") 한 것으로 간주





5 10 15 20 25 30  
 는 본래 반외에 기록했던 주석문이었는데 서방 계명 본문  
 속으로 들어가버린 것 같다. 그리고 여러 필경사들이 τὰ δια  
 ταχθέντα에 <sup>보충해야</sup> 한다고 여겨지는 한이 αὐτὸν을 첨가시킨 것  
 같다.

5 10 15 20 25 30  
 17:23 ἰδοὺ ἐκεῖ [ψ, ] ἰδοὺ ῶδε {D}  
 한편으로는 후기 희랍어에서 εἰ와 η가 거의 같게  
 발음되었기 때문에 결국 본문 특법의 변화를 야기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필경사들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된 혼동 때문에 다  
 양한 특법들이 생겨났다. 더욱이 마가의 이순 (ῶδε ... ἐκεῖ,  
 13:21) 또한 필경사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위원회는  
 현존하는 증거 자료들에 보존된 가장 오래된 특법으로 p<sup>15</sup>와  
 B에 의해 입증된 특법을 선정했다. 그러나 D<sup>ar</sup>, K, W, X,  
 Π, 28, 33, 700, 892, it<sup>b,ff</sup>, i, r, s, vg, syr<sup>c,s,p,h with\*</sup>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에 ψ가 많다는 점에서 이 판어를 본문에  
 두되 괄호로 묶어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15 20 25 30  
 17:23 μὴ ἀπέλαθτε μηδὲ διώξετε {C}  
 A본 p<sup>15</sup>, B, f<sup>13</sup>, al 등에 ἀπέλαθτε μηδέ가 삭제된 이유는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편집자들에 의해?) 중복되는 설명들을  
 본문에서 제거시켰기 때문이라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특법 π10  
 20 τεύσσετε (f<sup>1</sup>)는 마24:23과 막13:21에 있는 평행 본문에서  
 온 것이다.

17:24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ἐν τῇ ἡμέρᾳ  
 αὐτοῦ] {C} 유사문어 (類似文尾: Homoeoteleuton) 때

5 문에 필경사가 무심결에  $\epsilon\upsilon$   $\tau\eta$   $\eta\mu\acute{\eta}\rho\alpha$   $\alpha\upsilon\tau\omicron\upsilon$ 와 구절은  
 탈락시켰다고 볼 수도 있지만, 위원회는 알렉산드리아 계열과  
 서방 계열 본문 의 대표적인 증거 자료들 ( $P^{ms}$ , B, D,  $it^{a,b,d,e,i}$   
 )에 있는 짧은 득법에 더 비중을 두었다. 누가복음 내의  $\Theta$ 다  
 5 른 곳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반면  $\pi\alpha\rho\upsilon\sigma\acute{\iota}\alpha$ 가 있는 득법은 필경사가  
 마24: 21에 있는  $\tau\eta\varsigma$  본문과 일치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10  $\mu$ : 33  $\epsilon\acute{\iota}\nu$   $\zeta\eta\tau\acute{\eta}\sigma\eta$   $\tau\eta\upsilon$   $\psi\upsilon\chi\eta\mu\acute{\epsilon}\nu$   $\alpha\upsilon\tau\omicron\upsilon$   $\pi\epsilon\rho\iota$   $\kappa\omicron\iota$   
 $\eta\pi\alpha\sigma\theta\alpha\chi\iota$  {C} 복문 A 가운데 e 직 이 부분에서만 볼  
 수 있는 등 A  $\pi\epsilon\rho\iota$   $\pi\omicron\iota\epsilon\iota\sigma\theta\alpha\chi\iota$ 는 몇몇 필경사들에 의해 존속  
 10 약속한 반면  $\sigma\acute{\omega}\zeta\epsilon\iota\nu$  (9:24과 비교해 보라)으로 변경되었  
 다. 그리고 (서방 본문 계열에 속한) 또다른 필경사들은 복  
 음서들 내의 다른 본문에서는 본 절 후반  $\zeta\eta\tau\acute{\eta}\sigma\eta$ 만 제시되고 있는  
 $\zeta\omega\omicron\chi\omicron\nu\epsilon\iota\nu$ 으로 교체시켰다.

15  $\mu$ : 36 절을 인정치 않음 {B} 유사문미 (類似文尾  
 : Homoeoteleuton) 때문에 무연하게 36절  $\delta\upsilon\omicron$   $\epsilon\upsilon$   $\alpha\gamma\gamma\acute{\omega}$   
 $\epsilon\iota\varsigma$   $\pi\alpha\rho\alpha$   $\lambda\eta\mu\phi\theta\acute{\eta}\sigma\epsilon\tau\alpha\iota$   $\kappa\alpha\iota$   $\delta$   $\epsilon\tau\epsilon\rho\omicron\varsigma$   $\alpha\phi\epsilon\theta\acute{\eta}\sigma\epsilon\tau\alpha\iota$ 가  
 20 탈락되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A분  $\delta$ 와 소수의 다른 증거  
 자료들에서는 36절에서 끝나는 사건), 이 절이 빠져 있는  
 짧은 득법을 지지하고 있는 사본들 ( $P^{ms}$ ,  $\delta$ , A, B, L, W,  $\Delta$ ,  
 $\Theta$ ,  $\Psi$ ,  $f^1$ , 28, 33, 565)의 권위를 감안할 때 필경사들이 마  
 24: 40에 있는 본문에 등화시켰을 가능성이 더 크다.

18: 11  $\pi\rho\acute{\omicron}\varsigma$   $\epsilon\delta\upsilon\tau\omicron\nu$   $\tau\alpha\upsilon\tau\alpha$  {D} 이점 증거 ( $P^{ms}$ )